1. **오늘에게 (TO.DAY)**

Hey, 새로운 아침이야

새로운 나인거야

꿈만 같던 시작이야

Hey, 어제의 끝자락에

약한 나의 모습을

담담하게 두고 온거야

Oh, 휘몰아치는 바람에

꺾이지는 않을거야

Oh

안녕 나의 어제여

괜찮을 자신 있어 나

오늘이 시작인거야

간절하게 내게 외치는

Hello New Day

Hey, 희미한 빛인거야

깊숙한 내 맘속에

갇혀있던 희망이야

Hey, 이젠 놓치지 않아

외면하지도 않아

내 꿈에 난 닿을 수 있어

Oh, 휘몰아치는 바람에

꺾이지는 않을거야

Oh

안녕 나의 어제여

괜찮을 자신 있어 나

오늘이 시작인거야

간절하게 내게 외치는

Hello New Day

Oh

One by one, 하나 둘 한걸음 더

One by one, 당당하게 걸을거야

이젠 꿈 꿀 수 있어

무너지지 않아 나

새로운 시작이야

안녕 나의 어제여

괜찮을 자신 있어 나

오늘이 시작인거야

간절하게 내게 외치는

Hello New Day

Oh

Now it’s time to say hello

Hello New Day

1. **하늘을 달리다**

두근거렸지
누군가 나의 뒤를 쫓고 있었고
검은 절벽 끝
더 이상 발 디딜 곳 하나 없었지
자꾸 목이 메어
간절히 네 이름을 되뇌었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 갈 거야
내가 미웠지
난 결국 이것밖에 안 돼 보였고
오랜 꿈들이
공허한 어린 날의 착각 같았지
울먹임을 참고
남몰래 네 이름을 속삭였을 때
귓가에 울리는 그대의
뜨거운 목소리
그게 나의 희망이었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 갈 거야
허약한 내 영혼에 힘을
날개를 달 수 있다면
마른 하늘을 달려
나 그대에게 안길 수만 있으면
내 몸 부서진대도 좋아
설혹 너무 태양 가까이 날아
두 다리 모두 녹아 내린다고 해도
내 맘 그대 마음속으로
영원토록 달려 갈 거야

1. **영하**

처음 만난 날을 아직 기억합니다

유난히 차가웠던 그 겨울 그 거리

조금씩 어른이 되어 가는건가요

보고픈 마음들을 견뎌내는 일

시린 내 두 손에 입김을 불어

그리웠던 그대 모습 떠올립니다

처음 내게 아이처럼 눈부신 웃음을 건내주던

새 하얀 풍경 속 그댄 어디 있나요

혼잔가요 또다른 누구와 새로운 꿈을 꾸나요

난 아직 여기 추운 그리움 속에 있죠

눈 맺힌 창가에 입김을 불어

다정했던 그대 눈빛 그려봅니다

처음 내게 아이처럼 눈부신 웃음을 건네주던

새 하얀 풍경 속 그댄 어디 있나요

혼잔가요 또다른 누구와 새로운 꿈을 꾸나요

난 아직 여기 추운 그리움 속에 있죠

보고싶다는 그 한마디를 혼자 아프게 앓아 넘겨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두팔 가득 그댈 안아볼텐데

잘지내요 나없이도 아니 잘지내지는 말아요

가끔씩 그대도 나를 생각해줘요

그댈 정말 좋아했었다고 못다한 말이 많은데

짧았던 우리 오래 보내주기로 해요

처음 만난 날을 애써 지워봅니다

여전한 마음 모두 모른척합니다

1.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아무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외롭고

꽃이 피고 진 그 자리

끝을 몰랐었던 맘이

깨질 것만 같던 그때 우리 음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음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봐

바보처럼 기다려 난 오늘도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너무 예뻤잖아 둘이

매일 설레였지 그때 우린 음

시든 꽃에 물을 주듯

싫은 표정조차 없는

결국엔 부서진 여기 우리

다 잊었니 말없이 다 잊었니

사랑한단 말로 날 가둬둔 채로

넌 잊었니 난 잊지 못하나봐

바보처럼 기다린

바보처럼 빈 자릴 붙잡는 나

차라리 다 끝났다고 말해줘

이기적인 그 침묵에 또 나만

바보처럼 미련한

내가 미워

아무말도 아무것도 여전히 넌 여기 없고

널 원하고 널 원해도 난 지쳐가

**05(앵콜). 오늘도 응원할게**

1 2 3 go

안녕 난 먼 미래의 너야

막막해하는 오늘의 네게 위로를 전해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긴 호흡으로

네 안에 잠든 빛을 깨워가

(life ain’t easy when you’re losing

only you can make it winning)

기대해 새로운 날이 펼쳐질거야

(baby trust me when i say it

only you know what i’m saying)

살아가 담담히 네 뜻대로

응원할게 먼 미래에서 오늘의 널

꿈꿔온 그곳에 닿을 때까지

모든 날이 맑을 순 없겠지만

널 믿고 헤쳐나가줘

긴 호흡으로

바람이 유난히 거칠 땐

두 주먹 꼭 쥐고

네가 원했던

방향을 지켜

(life ain’t easy when you’re losing

only you can make it winning)

힘을 내 새로운 날이 너를 기다려

(baby trust me when i say it

only you know what i’m saying)

꿈을 꿔 누구도 막지 못하게

응원할게 먼 미래에서 오늘의 널

꿈꿔온 그곳에 닿을 때까지

모든 날이 맑을 순 없겠지만

널 믿고 헤쳐나가줘

긴 호흡으로

주문을 외워

네 앞길에 환한 빛이 가득하길

지켜볼게 또 다른 너의 시선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진심까지

기억해줘 어떤 시련이 와도

넌 모두 이겨내고 밝은 빛을 찾게 될거야

응원할게 먼 미래에서 오늘의 널 (oh oh)

꿈꿔온 그곳에 닿을 때까지 (닿을 때까지)

모든 날이 맑을 순 없겠지만

널 믿고 헤쳐나가줘

긴 호흡으로

ddu-du-ru ddu-du ddu-ru-ddu

oh oh oh oh

긴 호흡으로

ddu-du-ru ddu-du ddu-ru-ddu

oh oh oh oh

긴 호흡으로